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제자를 만든다



정우길 목사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다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졸업했다. 이후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며 제자훈련을 경험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뉴욕퀸즈장로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2000년 말 전통 교회인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제자훈련 사역을 해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예수비전교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후에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내가 상당히 먼 길을 돌아왔음을 알게 됐다. 신기하게도 이 작은 우여곡절은 예수비전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제자훈련 목회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흡사했다.

예수비전교회의 정우길 목사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 과정도 쉽지 않았다.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래서 예수비전교회 15년 제자훈련 목회의 경험,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성공담으로만 포장하지 않겠냐며 약속하고 설득했다.

정 목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자는 부교역자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정 목사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의 이유를 알게 됐다. 13기에 돌입한 예수비전교회 제자훈련은 교회 밖에서 보면 충분히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교회도 성장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공적'이라는 말에 조심스러워했다. 성공담, 결과 중심주의의 간증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교회와 제자훈련과 관련한 숫자, 그리고 성공적인 에피소드를 말하기보다, 목회자 자신의 시행착오와 아픔들을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현장이야기를 통해 제자훈련 목회자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또 어떻게 자신과 목회 현장을 돌아봐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살펴보기 원한다.

어머니 병 치유의 기적 겪으며 신학교 진학

정우길 목사는 34대 종손집 7남매 중 막내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미신을 따르는 분이셨다. 어린 시절 동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먹을 걸 준다면 교회에 같이 가자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는 얻어먹으러 가는 게 자존심 상해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 미션스쿨인 고등학교로 진학해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모범생이었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3 때까지 교회에 나갔지만 신앙은 없었다. 졸업할 때가 되자 3년이나 다닌 것이 아까워 세례증은 받아냈다. 거짓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잘못된 일이지만 그때 일을 통해, 그는 가정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며 교회는 뒷전이 됐다. 동아리 활동을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등곳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며 모세의 기적까진 안 바라고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믿겠다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다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대학교 3학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셨던 어머니가 귀신에 들렸다. 심방 온 목사님이 아버지께 어머니를 위해 함께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라고 권면하셨고, 이후 아버지는 소천하시기까지 주일을 지키셨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회의를 열었을 때, 정 목사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자고 가족을 설득했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나오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자 모든 것이 믿어졌다. 그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극적인 경험으로 시작됐다. 자신을 돕기 위해 교회 사모님이 산 기도를 함께하자고 권하셨다. 도움의 손길이 반가웠다. 그래서 삼각산으로 산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

대학 4학년 2학기 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8월 말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10월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장신대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바로 군 입대를 했는데, 전역 후 장신의 신학이 자유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장신대를 그만두고 1985년 총신대학교에 입학했다. 3월에 입학하기 전 1월 1일부터 서울남부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예수 사랑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첫 수련회를 진행할 때는 재미까지 있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목회를 접하다

감사하게도 1986년 11월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그는 그곳에서 제자훈련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었다. 전도사 2년차 시절 사랑의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신앙 경력, 부모님의 신앙 배경, 사역 경험, 설교 경험 등 모든 것이 부족했다.

마침 옥한흠 목사의 CAL 세미나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였다. 그래서 1987년에는 학교를 일주일이나 결석하고 CAL 세미나에 참석했다. 전도사여서 참석할 자격도 안 돼, 스태프로 청강했다. 훗날 학교를 졸업한 그는 사랑의교회 교역자로서



미국 생활을 마친 그는 예수비전교회로 부임했다. 당시 교회는 설립된 지 39년 됐으며, 정 목사는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이다. 그는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

정식으로 다시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사랑의교회에서 배우고 시작한 제자훈련은 일반적인 목양 교구의 제자훈련이 아니었다. 고등부와 청년부 제자훈련을 진행하다가, 1989년 목사 안수를 받으며 처음으로 장년부 제자훈련을 맡았다. 교회 내외에서 봉사하는 루디아선교회 제자훈련을 맡았는데, 이때의 경험이 후일 예수비전교회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

1990년도부터 1995년 말까지 목양 교구 제자훈련을 인도하던 정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한동안 공부를 하다가 뉴욕퀸즈장로교회의 부탁으로 제자훈련 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비록 부교역자였지만 전체 제자훈련 진행을 담당해 1년간 3개 제자반을 인도했다.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입한 경험은, 예수비전교회에 부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됐다. 1년을 사역한 후 남가주사랑의교회로 옮겨 2년을 더 사역했다.

강북 산동네, 39년 전통 교회의 5대째 담임목사

2000년 말, 미국 생활을 마친 그는 예수비전교회로 부임했

다. 당시 교회의 이름은 장성교회였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두 아이는 교회 부임을 반대했다. 하지만 40일 작정기도를 하던 중 기도 응답으로 결정한 부임이었기에 자녀들을 설득했고,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당시 교회는 설립된 지 39년 됐으며, 정 목사는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이다. 그는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교회 중직자들을 모두 제자훈련 시키기 위해 제자반을 4반이나 동시에 진행했다. 장로, 권사, 구역장, 안수집사를 반강제적으로 제자훈련을 받게 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시스템이 변화됐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 시행착오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목회적 토양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목회적 토양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가 위치한 장위동이라는 지역의 토양, 전통 교회의 토양,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경험의 토양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장위동 지역 구성원들의 평균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정 목사가 그동안 사역했던 구성원들과 차이가 있음을 간과했다.

또한 제자훈련의 세부적인 방법 차이를 요한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 목사는 사랑의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했다. 물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전 사역지의 제자훈련 분위기처럼 훈련생들이 과제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는 분위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다. 책을 안 읽어 온 사람이 많았다. 다그쳤더니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 버린 성도도 있었다.

그래서 변화를 꾀했다. 목상이 안 된 사람은 느낀 점만 적어 오게 하고, 암송이 안 되면 써 오게 하는 등 수준에 맞는 과제를 내 줬다. 장로, 권사인데 공부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제자훈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은 교회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고 주변 정비도 잘 돼 있지만, 부임 당시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고민했고, 떠나는 것이 익숙한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교회 구성원은 '남은 자들'이었고, 남은 자들은 도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였기에 20~30년간 성도들은

대부분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중직자는 많으나 그들이 순장으로 준비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었다. 또 제자훈련 공동체에 서는 엄하게 금하는 경제적 관계로 얽힌 사람들도 많았다. 서로의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에는 아픔이 있었다. 39년간 담임목사가 다섯 번이나 바뀐 것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 실제로 전임 목회자들 중 원만하게 사임한 사람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 교역자에 대한 상처, 서로에 대한 상처로 가득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시도도 헛수고가 됐고, 교회 내에서 양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니, 교회의 허락을 받아 외부 기관의 성경공부에 나가는 교인들마저 생겼다.

시스템만 도입하려 한 제자훈련의 맹점

이런 상황에서 답은 역시 제자훈련이었다. 정우길 목사는 만약 지금 1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간과했던 한 가지를 개선할 거라고 했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돼야 함을 15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제자훈련 시스템이 교회에 잘 도입됐다. 2001년 시작된 제자훈련은 2002년 1기 32명의 수료생을 시작으로 2003년 16명, 2004년 30명 등 꾸준히 많은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직의 조건으로 제자훈련 수료를 내 걸었다. 사역훈련도 진행했다. 1기 42명, 2기 29명, 3기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리더십의 문제였다.

정우길 목사는 그 시절 '나 혼자 고고(高高)한 곳에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럴 만도 했다.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확신할 만한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자

신이 먼저 원하고 찾은 사역지는 아니었다. 단지 기도 중에 부르심이 이곳이기에 결정했다. 소명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으로 왔으니 당당했다.

그러나 목회자의 본색이 나올 때가 중요하다. 목회자는 겸손해야 한다. 목회자는 대부분 외형적으로 겸손하다. 그가 13년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발견한 것은 목회자의 소명과 목회 철학마저 때론 자신의 교만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전통 교회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명과 결단이 필요하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도 그랬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회 방향과 맞지 않는 것에는 단호했다. 개혁도 하고 많이 바꿨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한다는 본질을 놓쳤다. 상대방을 바꾸기에만 힘썼지,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변화를 보여 주지 못했다. 목자의 시선, 목자의 사랑, 목자의 배려를 주지 않았다. 직분자들을 다 그칠 때 그것을 목회 철학의 반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교묘하게 위장된 교만일 수 있었다.

그는 '강남 사람'이고 '강남 목회자'였다. 강남에서 성장했고 사역지도 모두 강남의 부유한 지역, 혹은 미국 이민 사회였다. 자신의 당당한 목회 태도 이면에는 이런 교만이 숨겨져 있음을 몰랐다. 검증된 소명과 목회 철학 아래 교만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지만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 부임 후 청년부 첫 집회 때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 설교를 안 했다. 교만이었다. 상처 받은 몇몇 청년이 결국 교회를 떠났다. 목회는 마음과 사랑이 전달 되는 현장이다.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데, 자신의 교만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음을 당시엔 몰랐다.

그러다 2004년 첫 위기가 찾아왔다. 장로들과의 갈등이었다. 2002, 2003, 2004년에는 많은 제자훈련 수료자와 사역훈련 수료자를 배출했지만, 갈등이 표면화 된 2005년에는 제자훈련생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표면적으로 장로와의 갈등이었기에, 성도들은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았다. 정 목사는 이를 전통 교회에 익숙한 제직들



과의 갈등으로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성도들은 이 사건을 잊었고, 목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2006년 제자훈련생 숫자도 회복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7년 차(2007년)에 안식년에 돌입했다. 5개월을 쉬고 복귀했다.

감사하게도 이 휴식기에 문제의 근본 원인인 목회자인 그에게 1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정 목사는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속에는 성도들보다 자신이 앞선다고 생각했던 태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지역과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 그는 이를 '비로소 장위동의 골목길이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한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사역은 신났다. 이제 그곳은 자신의 지역이 됐고, 제자훈련으로 전환된 교회에서 훈련을 시작해 제자훈련 목회가 익숙한 사람들이 순장이 됐다. 제자훈련이 잘 정착한 듯 보였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다. 목회자가 문제임을 보게 하셨다. 비로소 주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처음에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았지만, 목회를 배워 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아닌 배운 대로, 경험대로만 살았고 사역했음을 깨달았다.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는 충돌할 일이 없었다. 충돌이 있어도 교회를 옹기고 부서를 옹기면 됐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담임목회는 달랐다. 그곳에서, 벼랑 끝에서,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됐다. 옹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 목사는 이를 고백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결국 목회자에게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위기는 경험과 테크닉으로 넘어갔다면, 두 번째 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 드디어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음을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곤 교회의 상황도 변해갔다.

2010년에 2차 위기가 왔다. 이번에도 리더십과의 갈등이었다. 이번엔 자신이 훈련시키고 키운 제자훈련 리더십과의 갈등이었다. 자신에게 잘 대해 주던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 문제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같았다. 목사 혼자 한다는 불만이였다.

결국 2차 위기를 계기로 1차 위기까지 돌아보게 됐다. 목회자에게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자 사임하기 직전까지 갔다. 다행히 사임까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회는 1년 정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제자훈련도 위기가 찾아왔다. 성도들이 줄었고, 제자훈련생들도 줄었다. 사역훈련도 중단됐다.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에야 비로소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게 됐다. 첫 번째 위기는 경험과 테크닉으로 넘겼다면, 두 번째 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 두 번째 위기가 더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만져 주셨

성도들과 같은 '강박' 사람이 되다

두 번째 위기를 맞았을 때는 하나님께 누가 옳은가 질문하며, 자신은 떳떳하다며 사임까지 할 생각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인 것이다.

그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기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겸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내면에는 자존심을 건드리 는 것을 참지 못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양보는 얼마든지 했다. 그러나 자신을 남보다 못하게 보거나, 자신의 소신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제서야 그것을 깨뜨리게 하셨다. 정 목사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됐고, 목회의 아픔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을 바꿔 주심을 경험했다. 그래서 초심으로,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자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다. 전에는 하나님 뜻을, 응답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



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는 교인들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와 일주일을 강단에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동안 불안과 걱정보다 기대와 평안이 넘쳤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과가 아니었다. 임기응변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깨지는 순간이 기쁘게 기다려졌다.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이 감사했다. 드디어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음을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의 상황도 변해갔다.

정 목사는 '강북' 사람, '강북' 목회자가 된 것이 행복하다고 거듭 말했다. 누군가 강북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이제야 온전한 '강북' 사람이 된 것이다.

올해 통계적으로 교회는 최고점을 통과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오히려 힘을 뺐다. 예배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다. 다만 목회자의 마음이 바뀌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다. 새가족이 늘었고, 새가족과 젊은이들이 제자훈련에 돌입하게 됐다. 목회가 신나고 재미있게 됐다.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인도자가 돼라

정 목사는 15년 담임목회를 하며 육체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위기 속에서 운동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환난 중에 영과 건강이 회복됐다. 제자훈련 인도자는 제자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훈련생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은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아직 제대로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방향이 맞으니 언젠가는 결과가 있겠지' 하고 앞만 보고 인내하며 달려가기 쉽다. 목회에는 인내와 침묵도 필요하고 결단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본질은 아니다. 목회자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훈련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커다란 제자훈련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목회자 자신이 제자가 됐는지는 그가 어떤 고백으로 목회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제자가 된 제자훈련 목회자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을 오픈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 각오로 본받고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란 결국 따르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회자를 보고,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 멀리 고고한 곳에서 이리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고 딱 한 발 앞서가며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목회를 바꿔 주신다. 제자훈련을 위해 뭘 더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만든 체계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그걸로 얼마간은 버틸 수도, 얼마간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

부흥하는 목사라고 해서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인품, 방법론의 한계가 올 때 목회자와 교회 모두 지치게 된다. 방법과 기질이 미흡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우상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사람이 끝까지 목회할 수 있다.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하는 목회는 평생을 바라



목회자 자신이 제자가 됐는지는 그가 어떤 고백으로 목회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제자가 된 목회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다.

보고 하는 것이다.

평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다. 자신의 목회를 위한 도구로만 보인다. 그렇게 목회해도 숫자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행여 흡족하지 않은데 포기할 수도 없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가?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경험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는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씨름하며 이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씨름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기쁘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만 목회가 행복하다. 스스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프로그램과 교재는 자유자재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틀이 되서는 안 된다. 큰 흐름을 만드는 도구가 돼야 한다. 한 방향성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풍성함을 위해 부교역자와도 협력했다.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훈련생들이 담임목사 앞에서와 부교역자 앞에서 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한계성을 인지하고 부교역자들과 협력해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인도하게 했다. 제자훈련 전반부와 사역훈련은 담임목사가 인도하고, 후반부는 부교역자가 인도하게 했다. 담당 부교역자는 제자훈련 전반부에 제자반에 들어와 뒤에 앉아 참관한다.

CAL세미나를 통해 같은 제자훈련 철학을 배우고, 담임목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인도 방법들을 공유한 부교역자들이기에 제자반에서 그들만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부교역자들과 동역하니 제자반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부교역자들도 사역이 신난다고 한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 지도를 해주는 부교역자도 있었다. 만약 담임목사가 개인 지도를 한다면 그분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성도와 동역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비전교회의 제자훈련은 어느덧 13기에 접어들었다. 정목사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왔다. 목회가 행복하다. 성경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그것을 더 마음 깊이 누리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알았다. 기도가 무엇인지 더 알겠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제야 목회를 알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 이십다."

정우길 목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는 것이 예수비전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순장이 소그룹을 인도할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순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삶을 나누는 것도 한두 번이다. 한계가 있다. 중년이 되고 나면 삶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비전교회는 아직 나누는 능력과 연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르침을 맡길 만한 리더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순장반에서 목회자의 것을 배워서 가져다가 기계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인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삶의 나눔과 말씀의 가르침 모두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둘 다 잡는다는 것은 이상향일 뿐이다. 중간은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순장반에서도 2년 정도의 주기로 말씀 중심과 나눔 중심을 오가고 있다고 한다. 2년은 말씀 연구에 무게를 뒀다면, 다음 2년은 나눔에 무게를 둔다. 교회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 중심추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핵심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 줄 게 없을 때 사임한다는 각오로 사역한다. 만나서 무엇을 보여 줄지, 어떻게 보여 줄지 하는 것은 아직 남은 숙제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중심은 여전히 목회자 자신의 변화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우길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선포한 후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매일 개인적인 큐티를 카카오톡으로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다. 제자반뿐 아니라 부교역자들에게도 공유하고 가족과도 공유한다. 성경 강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연구와 느낌, 적용을 공유하며, 약점을 드러내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의 덕을 위해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만 생략하거나 실명을 숨긴다.

큐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처음 믿을 때의 고백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 어머니기도회, 성품학교 등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만, 자칫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제자훈련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은 성경 보고 기도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요즘에는 성도들의 연약함도 다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상황이 이해된다. 개척 교회 목사의 심정과 상황이 이해가 된다. 이제는 부모의 마음이 된 것 같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엔 상대방의 아픔이 안 느껴졌다. 그저 숙제 안한 것이 답답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못했다. 정 목사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20분이면 할 숙제를 2~3시간씩 붙들고도 다 못해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해한 후로는 강요하지 않는다. 이제는 야단을 치더라도 예전처럼 자신의 뜻을 안 따라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야단치게 된다.

성도들에게 별도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런 변화

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담임목사가 권위적이지 않아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담임목사가 인간적인 약함을 권위로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모습에서 교회의 소망을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담임목사의 삶의 솔직한 공개가 가정관과 자녀 교육관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눈이 많이 올 때도 교회 근처에 사는 관리집사와 부교역자를 부르지 않고, 사모와 함께 교회 주차장과 동네 골목길을 치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도 했다.

훈련 기간의 은혜가 크지만 순장으로 섬긴 후,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위한 숙제가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성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역시 스스로 숙제로 인식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공감하며 대안을 찾아 5년 후, 10년 후 더 풍성한 인터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가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프로그램 소개로 인터뷰가 흘러가는 것을 매우 꺼려한 탓에, 성도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 사역과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예수비전교회는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실버 세대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인 교회였다. 특히 부부가 함께 제자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정 목사는 예수비전교회 교인 수가 늘어난다든지, 자녀가 잘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성공담은 순간 자극은 될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더 큰 괴리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목회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나누는 은혜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이 누군가의 목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다. 자신의 부족함은 얼마든 기사화해도 좋다고 했다. 정 목사는 인터뷰 내내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행복하고 감격에 차 자신의 실패담을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이 많은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목회자로서 진정한 제자가 돼 가는 그의 행복감은 제자훈련 사역을 붙들었기에 맞볼 수 있는 혜택인 것 같다. 많은 제자훈련 목회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안승훈 전도사〉

